Stage 9 Fiction – Robo-Vac

Cover Note & 본문 번역

Cover Note	
About this Book (책에 대하여)	Connor의 증조할머니께서 그녀의 청소 로봇을 원하지 않으셨을 때, Connor는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왔고 그것이 도움보다는 방해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 좋게도, 로봇청소기는 아빠의 잔디 깎는 기계와 사랑에 빠졌고 청소를 그만두었습니다.
Talking Points (중요 포인트)	- 제목을 함께 읽어보세요. 어떤 두 단어가 줄여져서 'Robo-Vac'이라는 이름이 되었을까요? Robo-Vac이 어떤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하나요? - 아이가 챕터 2(13페이지)를 읽고 잠시 멈추도록 하세요. Connor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가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 이 이야기의 예를 들어서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주세요. - 아이가 남은 내용을 자신의 속도에 맞게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Read aloud (소리 내어 읽기)	14~18페이지를 함께 읽어보세요. 4 챕터의 제목-'이거 다시 가져가!'(19페이지)-를 보세요. 왜 Gemma는 로봇청소기를 원하지 않았나요?
After reading (책을 읽은 후)	- 아이가 로봇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그 로봇을 함께 그려보세요. - 만일 아이가 로봇에 관심을 가진다면,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로봇에 대한 많은 자료를 찾는 것을 제안해보세요.

Story Book (본문번역)	
p3	1 새로운 로봇 Connor의 증조할머니께서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이건 늙은 사람들을 위한 집이란다. 그녀는 그녀를 도와줄 많은 로봇을 가지게 되실 거야.' Connor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를 위한 작은 로봇까지 말이야.'
p4	'로봇이요?' Connor가 말했습니다. '멋지다!' 그는 구경하기 위해 증조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부엌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은색 원반처럼 생겼습니다.
p5	그것은 바퀴와 두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팔은 물건을 붙잡는 집게였습니다. 또 다른 팔은 새끼 코끼리의 코처럼 부드러운 회색의 호스였습니다. 그것은 청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꼬리에 작은 솔이 달려있었습니다.
p6	Connor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팔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꼬리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눈처럼 생긴 두 개의 푸른빛이 그것의 위쪽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와,' Connor가 말했습니다. '정말 귀엽다!'
P7	그리고 로봇 청소기는 바쁘게 부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빨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쓸고 닦았습니다. 언제나 그것은 즐겁고 작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P8	하지만 증조할머니께서는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기계가 싫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걸 다시 돌려보내야겠어.' 마치 그것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듯이, 로봇 청소기는 청소를 그만뒀습니다. 그것은 탁자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즐겁고 작은 노래를 멈췄습니다.
P9	'정말 슬퍼 보여요.' Connor가 말했습니다. '돌려보내시면 안 돼요.' '그럼, 네가 가지렴.' 증조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가져가렴.' '네, 제가요?' Connor가 말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하러 갈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로봇은 이미 Connor를 따라가며 행복하게 윙윙거렸습니다.
P10	2 그만해! Connor는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로봇청소기는 길을 청소하면서, 그의 뒤를 따르며 윙윙거렸습니다. '멋지다!' Connor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너만의 로봇이잖아!' '거기 있어!' Connor가 로봇청소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축구를 하러 갈 거야.'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봇청소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P11	그리고, 갑자기, 로봇청소기는 경기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Jason의 발을 걸었고 축구공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Connor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이 더러워질 때마다, 로봇청소기는 달려 나와서 그것을 닦았습니다.
P12	'그만두지 못해?' Connor의 친구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로봇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우리의 경기를 망치고 있어.’ Connor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저 큰 해충일 뿐이야!’ 마치 그것을 이해한 듯이, 로봇청소기의 눈이 또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슬퍼 보였습니다.
P13	Connor는 로봇청소기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도움을 주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증조할머니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돌봐줄 수 있을까요? ‘이리 와, 로봇청소기야.’ Connor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로봇청소기는 즐겁게 낙엽을 빨아들이면서, 그의 뒤를 따라가며 윙윙거렸습니다.
P14	3 로봇청소기는 청소합니다 Connor는 로봇청소기를 그의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Connor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이 지저분한 게 좋아!’ 하지만 그 작은 로봇은 모든 것-더러운 양말, 숙제, 그리고 잔돈-을 치웠습니다.
P15	‘네가 내 신경을 긁기 시작하는구나.’ Connor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즐거워했고 그를 순수한 푸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청소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P16	‘건전지가 다 닳을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Connor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나를 정말 화나게 해!’ 갑자기, Connor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로봇청소기를 그의 누나 Gemma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P17	Gemma는 Connor 만큼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로봇청소기와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Gemma 누나,’ Connor가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청소 로봇이 가지고 싶지 않아?’
P18	‘우와!’ Gemma가 말했습니다. ‘청소 로봇이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Connor는 그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로봇청소기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는 몇 가지 물건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이제 그는 그가 좋아하는 만큼 어지럽힐 수 있었습니다...
P19	4 ‘이거 다시 가져가!’ 다음 날 아침, Gemma는 Connor의 방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로봇청소기는 그녀의 뒤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이거 다시 가져가!’ Gemma는 Connor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건 정말 나를 짜증 나게 해!’ ‘하지만 누나는 깔끔한 걸 좋아하잖아.’ Connor가 말했습니다.
P20	‘그건 맞아.’ Gemma는 말했습니다. ‘내 방에서는 치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얘는 구석에 앉아서 정말 슬퍼 보인단 말이야.’ ‘나도 알아.’ Connor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방을 어지럽혔어.’ Gemma가 말했습니다. ‘얘를 다시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P21	‘안 그랬지!’ Connor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깔끔한 누나는 그저 로봇청소기가 행복해하기를 원해서 그녀의 방을 어지럽혔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얘를 다시 데려가 줘.’ Gemma는 부탁했습니다. ‘나는 더럽히는 것이 정말 싫어.’ ‘글쎄, 나는 깔끔해지는 것이 싫어.’ Connor가 말했습니다.
P22	Connor와 Gemma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봇청소기는 이미 Connor의 운동화를 줍고 정확하게 쌍을 맞추느라 바쁜 상태였습니다. ‘로봇청소기를 해결할 무언가를 해야겠어.’ Connor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Gemma가 말했습니다.
P23	5 로봇청소기 친구를 찾다 ‘저게 무슨 소리지?’ Connor가 말했습니다. 브르르르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바깥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잔디를 깎고 계시는 아빠야.’ Gemma가 말했습니다. 브르르르르… 로봇청소기는 청소를 멈췄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P24	그때, 갑자기, 그 작은 로봇이 재빨리 방을 나갔습니다. 그것은 계단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어딜 가는 거지?’ Connor가 물었습니다. 로봇청소기는 달가닥 소리를 내며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가자!’ Gemma가 말했습니다.
P25	Connor와 Gemma는 아래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봇청소기는 잔디 위에 앉아있었습니다. 그것의 푸른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거지?’ Gemma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잔디 깎는 기계를 밀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작은 로봇의 눈은 더 반짝였습니다.

P26	‘잔디 깎는 기계를 바라보는 거구나.’ Connor가 말했습니다. 브브르르르르! 잔디 깎는 기계가 으르렁거리며 다시 지나갔습니다. 로봇청소기의 팔이 신이 나서 흔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 Gemma가 말했습니다. Connor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사랑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P27	‘웃지 마!’ Gemma가 말했습니다. ‘너는 저 애에게 상처를 줄 거야.’ Connor는 다시 보았습니다. Gemma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만일 내가 로봇청소기라면,’ Gemma가 말했습니다. ‘저 잔디 깎는 기계와 사랑에 빠질지도 몰라. 지금 저 잔디가 얼마나 깔끔한지 봐봐!’
P28	아빠는 그 커다란 잔디 깎는 기계를 헛간에 넣으셨습니다. 로봇청소기는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Gemma는 창문으로 몰래 엿보았습니다. ‘와,’ Gemma가 말했습니다. ‘저 둘을 봐. 정말 사랑스러워!’
P29	Connor는 안을 엿보았습니다. 로봇청소기는 잔디 깎는 기계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 작은 로봇은 그것을 사랑에 빠진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자유가 되었군!’ Connor가 말했습니다. ‘이제 로봇청소기는 사랑에 빠졌고, 이제 우리를 따라다니며 청소하는 데에는 흥미가 없어졌을 거야!’
P30	Connor는 그의 방으로 달려 올라가서 물건들을 주위에 던졌습니다. Gemma는 그녀의 방에서 바쁘게 줄을 맞춰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밖에서는 헛간 안에서 로봇청소기가 잔디 깎는 기계의 옆에 바싹 붙어있었습니다.
P31	‘얼마나 멋진 일이야.’ Connor가 그의 침대에서 몸을 쭉 뻗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졌어.’